

뜨는 KIA·삼성 ... 지는 SK·두산

■ 전반기 마친 프로야구

21일 끝나는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전반기는 크게 세 팀의 부침으로 요약된다. KIA와 삼성의 '약진'과 두산의 '침몰'이다.

호남과 영남의 전통의 라이벌인 KIA와 삼성은 6월 하순부터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끌며 SK와 두산이 수년간 이뤄온 양강 체제의 틀을 바꿔놓았다.

두 팀은 각각 강력한 선발진(KIA)과 막강한 불펜(삼성)을 앞세워 승승장구하면서 야구는 역시 '투수 놀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KIA는 윤석민(11승)·아벨리노 로페즈(10승)·트레비스 블랙클리(7승) 삼총사를 앞세워 20일까지 거둔 51승 중 75%인 38승을 선발승으로 따냈다.

반면 삼성은 '돌부처' 오승환을 중심으로 뚝나바리처럼 짜인 철벽 불펜이 8개 구단 중 가장 좋은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하고

선발 KIA·불펜 삼성 승승장구 '투수 놀음'

이용규·이대호·이범호 불꽃튀는 타격 싸움

17승 26세이브를 합작했다. 또 KIA와 삼성은 이범호와 최형우가 확실한 '해결사'로 타선의 중심에 서면서 공격력이 강화됐다.

'빈집에 들어온 소'나 다름없는 이범호는 타율 0.312와 17홈런, 72타점을 거둬들이며 단숨에 호랑이 군단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다.

최형우도 홈런 2위(19개), 타점 3위(63개)를 달리고 위압감을 주는 타자로 성장했다. 특히 이범호와 최형우는 결승타를 8개 구단 타자 중 가장 많은 12개씩 터뜨리며 '클러치 히터' 능력을 뽐냈다.

KIA와 삼성의 전력이 타 팀을 압도하면서 1993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두 팀이 맞붙기를 바라는 팬들의 기대도 높

아가고 있다.

반면 마운드에 탈이 난 팀은 미끄러움을 탔다. 마무리 임태훈이 개인 사정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두산은 5월에만 7승1무17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남겼고 결국 김경문 감독은 6월13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상위권을 맴돌았던 두산은 33승2무41패를 거뒀고 4위 LG에 4.5경기 뒤진 6위에 머물러 포스트시즌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

에이스 김광현과 송은범의 부진이 겹쳐 선발이 무너진 SK도 6월28일, 1년 2개월간 지켜온 선두 자리를 빼앗긴 뒤 3위까지 내려앉았다. 팀 순위 싸움과 함께 개인 타이틀 경쟁도



윤석민

이용규

점입가경이다.

특히 이용규(KIA·0.367), 이대호(롯데·0.354), 이병규(LG·0.347)가 벌이는 타격왕·최다 안타 경쟁이 불꽃을 튀긴다.

홈런 1위(20개), 타점 2위(70)에 오른 지난해 타격 7관왕 이대호는 올해에는 두 부문에서 최형우, 이범호와 경쟁하고 있다.

투수 부문에서는 윤석민의 3관왕 달성 여부가 관건이다. 다승과 탈삼진(109개) 1위인 윤석민은 평균자책점에서만 2.62로 2위다. /연합뉴스

올스타전 '상금잔치'

승리 팀 상금·현물 6400만원·MVP엔 K5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에는 출범 30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풍성한 상금이 걸려 있어 선수들의 투지가 더욱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오후 6시30분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의 시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스타리그(SK·삼성·두산·롯데)와 웨스턴리그(KIA·LG·한화·넥센)로 나뉘어 열리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상금 3000만 원과 함께 1200만 원 상당의 외식업체 비스(VIPS) 상품권, 220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야구용품 등 총 6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가져간다.

최고의 성적을 올려 '미스터 올스타'로 뽑히는 선수는 트로피와 함께 KIA 자동차가 협찬하는 K5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는다.

포털사이트 NHN이 후원하는 승리감 독상·우수투수상·우수타자상·최다 탈삼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이 돌아가고 전직 프로야구 사장들의 모임인 선구회에서 수여하는 미기상 수상자도 상금 200만 원을 가뭇돈으로 챙긴다. 'G마켓 홈런 레이스'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받는다.

'별들의 잔치' 주역인 선수뿐 아니라 팬에게도 푸짐한 경품이 돌아간다.

KBO는 입장 관객 중 추첨을 통해 KIA 자동차가 협찬하는 쏘울 승용차 1대, 롯데카드 30만 원 기프트카드 3장을 증정한다. 또 올스타와 레전드 올스타의 사인본 100개와 올스타 부채와 물티슈, 막대풍선도 준다.

경기 중 있을 'G마켓 문자 이벤트'와 '동아오츠카 문자이벤트'에 당첨된 이들

에게는 DSLR 카메라와 포카리스웨트 타일, 키스 타임에 당첨된 4커플에게는 20만 원 롯데 기프트카드를 증정한다. /연합뉴스

맨유 박지성 미국서 연일 골 맛

시애틀전 1골 1도움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뛰는 박지성이 미국에서 치르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골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박지성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 센츨리링크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축구(MLS)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친선전에서 3-0으로 앞선 뒤 후반 24분 웨인 루니의 골을 도운 뒤 2분 후에 팀의 다섯 번째 골을 쏘았다.

맨유는 1골 1도움을 기록한 박지성

의 활약에 힘입어 7-0 대승을 거두고 미국 투어에서 2연승을 올렸다.

이날 골로 박지성은 14일 뉴잉글랜드전에서 득점한 데 이어 두 경기 연속골의 기쁨을 맛봤다.

시애틀의 초반 공세에 잠시 예를 먹은 맨유는 전반 15분 파트리스 에브라의 크로스를 마이클 오언이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을 잡았다. 전반에 벤치를 지킨 박지성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출전해 중앙 미드필더로 나섰다.

맨유는 후반 3분과 6분에 마테 비람 디우프와 루니가 각각 골을 넣어

점수 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후반 20분에 왼쪽 미드필더로 자리를 바꾼 박지성은 후반 24분 페널티 지역 왼쪽 부근에서 페널티지역 중앙에 있던 루니에게 정확한 패스를 내줘 4번째 골을 도왔다.

공격포인트를 올린 박지성은 후반 26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오베르탕이 크로스를 풀어 루니가 흘러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맨유는 이후 루니와 오베르탕이 추가골을 보태 무려 7골을 쏟아내는 화려한 골 잔치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영광출신 신지애(23·미래에셋)가 20일(현지 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LPGA 투어 에비앙 마스터스 대회 프로-암 경기 18번홀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파라과이·우루과이 코파 결승 격돌

파라과이가 베네수엘라를 꺾고 2011 코파 아메리카의 결승에 올라 남미 최강의 자리를 놓고 우루과이와 격돌을 벌이게 됐다.

파라과이는 21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벌어진 대회 준결승전에서 연장 120분 접전 끝에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후스토 빌라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에 힘입어 베네수엘라를 5-3으로 꺾었다.

이날 결정적인 기회는 베네수엘라가 더 많았다. 베네수엘라는 전반 34분 비스카르도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으나 심판의 파울 판정으로 무효가 됐다.

양팀은 후반에도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으나 골을 터뜨리지 못해 승부가 연장으로 넘어갔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14번이나 우승한 강호 우루과이와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파라과이의 결승전은 25일 4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전국 외국인 근로자 배구대회

24일 전남대 체육관... 21개팀 참여

전국 외국인 근로자 배구대회가 오는 24일 전남대학교 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민서포터즈자원봉사단(대표 문오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공단 21개팀, 1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자원봉사단 500여 명 등 17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2008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광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화합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오권 대표는 21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광주시민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 광주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광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원기자 cki@

에비앙 마스터스 티오프

신지애(23·미래에셋)가 21일 오후 (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방의 에비앙 마스터스GC(파72·6334야드)에서 시작되는 미국LPGA투어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김인경(하나은행), 카렌 스테플스와 함께 티오프했다.

신지애 "이제 우승할 시간 됐다"

2년 뒤 메이저 대회로 격상되는 에비앙마스터스는 신지애에게 각별한 대회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고전하다가 에비앙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같은 해 11월 미즈노클래식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올해도 아직 우승이 없다. 2008년부터 매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2승 이상씩 거뒀는데 올해는 무관이다. 에비앙마스터스가 또 한번 반전의 장이 될까. 신지애는 외신 인터뷰에서 "사실

지난해에도 에비앙마스터스 전까지 우승이 없었다"면서 "이제 우승할 시간이 된 것 같다. 많은 팬들이 우승을 기다리고 있는 걸 안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올해 2위만 두 번 했다. 신지애가 올해 첫 승과 함께 에비앙마스터스 2연패를 하면 크나큰 영예가 덩어리 따라온다. 한국 여자골프의 LPGA 100승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 페 ₩29,000 / ₩33,000
양 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